美·日·佛·獨·英 환율 안정 노력 '플라자 합의' 30년…

끝나지 않은 환율전쟁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
美, 강달러 막으려 금리인상 연기
유로존·일본 '양적완화' 만지작

"환율 인상에 해외자본 이탈할까"
호주·태국·인니 등 금리 동결
한국,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글로벌 경제 발전을 위해 주요 경제대국이 환율을 안정시키자고 합의한 '플라자 합의'가 이뤄진 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환율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 데 이어 미국은 달러화 강세를 초래하는 금리 인상을 연기했고 이에 맞서 유로존과 일본도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강대국간 첫 노골적 환율조작＝'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22일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5개국이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강달러 때문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박한 결과였다. 즉 달러 강세를 달러 약세로 전환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미국의 압박도 있었지만, 미국의 대외 불균형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작용해 합의가 이뤄졌다. 이 합의 이후 달러 약세, 즉 다른 나라 화폐의 강세는 곧바로 나타났다.

◇강대국 30년 후 다시 환율전쟁 격화＝오는 22일이면 30주년이 되는 플라자 합의의 기본 정신은 잊히고 각국은 다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위안의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계속 도입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기준 금리를 잇달아 내린 데 그치지 않고 지난달에는 위안의 가치를 절하시켰다.

미국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것도 환율과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지금보다 더 심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이는 미국의 경기 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도 경기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양적완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유럽연합 단일화폐인 유로의 약세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침체가 예상보다 심하고 미국의 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지자 유럽중앙은행(ECB)은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국이 화폐 가치 인하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흥국은 고래싸움에 낀 새우 될까＝강대국 사이에 낀 신흥국들은 이러지로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저유가로 경제성장에 타격을 입은 노르웨이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상당수 신흥국들이 이미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여서 인위적으로 더 내려도 큰 효과가 나기 어렵다.

반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면 외환위기에 몰릴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호주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몇 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발 쇼크로 수출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들 상당수는 한은이 연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는 내년 초까지 두 차례 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봉사·헌신은 이념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쿠바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20일 오전(현지시간)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혁명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봉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설파했다.

열흘간의 역사적인 쿠바·미국 방문을 위해 전날 아바나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봉사는 절대 이념적이지 않다"면서 타인을 돕는 삶에 대해 역설했다.

미사에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포함한 수 만명이 참석해 교황의 말을 경청했다.

역대 교황으로는 세 번째로 쿠바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조형물 아래에서 라틴 아메리카 출신 첫 교황답게 스페인 어로 미사를 집전해 쿠바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A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쿠바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갔으나 이념과 혼자만 잘살려는 이기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독교인들은 신의 뜻에 따라 항상 개인의 바람과 욕망, 권력 추구 의지 등을 한쪽으로 치워두는 대신 가장 취약한 이웃을 돌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념이 아닌 사람을 돕는 것이므로 봉사와 헌신은 절대 이념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오른쪽)이 19일 쿠바 혁명광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경폐쇄 자폐적 행위" "한심한 행동"

동유럽 갈등…갈길 잃은 난민

난민문제를 놓고 독일과 스웨덴 등 서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동유럽 국가들 간에 책임전가식 상호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다.

21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총리가 헝가리의 망명 신청자 수용 거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자,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교장관은 "한심한 행동이다. 크로아티아가 난민들을 단 하루도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맞받아쳤다.

보그단 아우레스쿠 루마니아 외교장관도 헝가리의 국경 폐쇄가 유럽연합(EU)의 정신에 어긋나는 "자폐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이들 국가간 외교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난민들은 갈길을 잃은채 고통을 겪고 있다.

슬로베니아 접경에 위치한 크로아티아 브레가나 근처에는 20일 1천여명의 난민들이 발이 묶였다. 슬로베니아는 일부 소규모 그룹의 난민 유입을 허용했으나 19일 열차편으로 입국한 난민들은 크로아티아로 돌려보냈다.

슬로베이나 통과가 거부된 채 브레가나에 체류 중인 난민들은 다수가 헝가리와 세르비아 접경지역에서 발길을 돌려 크로아티아를 통과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크로아티아는 헝가리가 지난주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따라 철조망 설치를 완료하면서 서유럽으로 가는 주요 통로가 차단된 이후 난민들이 자국 영토와 북쪽 국경선을 통과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16일 이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2만명의 난민들이 들이닥치자 당황한 크로아티아 정부는 태도를 바꿔 한 곳을 제외하고 세르비아와의 국경통로를 모두 폐쇄했다.

게다가 슬로베니아와 헝가리 양국은 크로아티아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차단하고 있어 이들 3국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연합뉴스

정부, 태국 체류 미얀마 난민 30명 한국 정착 지원

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을 한국으로 데려와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의 심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 면접 등을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해외 난민 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이 있으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의 하나다.

난민법의 '재정착 난민' 개념 도입 이후 국내에서 정책 시행은 처음이다.

난민을 찾아가 데려오는 정책은 이미 미국·호주 등 2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 동참하면 아시아에서는 2010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UNHCR에서 재정착 대상자를 추천받은 정부는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 다음 달 태국 현지 난민캠프에 직원을 보내 면접, 건강검진 등을 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는 올해 12월께 한국에 들어온다.

재정착 난민으로 입국하면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입국 난민들은 초기 6～12개월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취업 교육 등을 받고, 퇴소 후 정착 지역이 결정된다.

/연합뉴스

"북 풍계리 핵실험장 이상징후 없다"

북 전문웹사이트 '38노스'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사로 인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위성사진 판독에선 핵실험 준비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북한 전문웹사이트 '38노스'가 밝혔다.

38노스의 18일자 최신 분석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시설도 지난 8월 이래 거의 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수 주중대사도 지난 18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는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핵실험이 이뤄진 서쪽 갱도 입구에선 올해 초 이후 지금까지 특별한 활동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특히 다른 갱도를 파느라 생긴 흙더미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갱도 굴착이 완료됐거나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연합뉴스